

# 美 대선 막판 혼전...이코노미스트 예측모델 “해리스, 열세 극복”

### 선거인단 ‘269명 vs 269명’ 예상...해리스, 트럼프와 동률 각주 선거인단 승자 독식 제도...선거서 뚜렷히 승패 갈릴 것

일주일도 남지 않은 미국 대선에 막판 혼전 양상을 띠고 있다.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전개되는 것처럼 보였던 선거 구도가 다시 민주당 후보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초접전으로 복귀한 모습이다.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지난 30일(현지시간) 미국 대선 결과 예측 모델에서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은 각각 538명의 선거인단 중 절반인 269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해 동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선거인단의 과반을 획득한 후보가 없을 경우 연방 하원의 투표로 승자가 결정된다.

다만 미국 건국 후 지금까지 실제 대선에서 이 같은 동점 상황이 발생한 적은 없었다.

또한 해리스 부통령의 당선확률은 50%로 상승해 트럼프 전 대통령(50%)과 동률을 이뤘다.

최근 이코노미스트의 예측 모델에서 해리스 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열세를 보였다.

지난 21일 분석에서는 해리스 부통령이 확보할 것으로 보이는 선거인단은 2



미국 대선 후보인 민주당 해리스(왼쪽) 부통령과 공화당 트럼프 전 대통령.



62명에 그쳤고, 당선확률은 45%로 지난 8월초 이후 2개월여 만에 트럼프 전 대통령(54%)에 리드를 내주기도 했다.

그러나 전날 이코노미스트가 집계한 전국 여론조사에 따르면 해리스 부통령은 미시간과 노스캐롤라이나, 펜실베

니아, 위스콘신 등 4개 경합 주 여론조사에서 지지도가 평균 0.4%포인트 올랐다.

미세한 상승이지만, 당선확률에 미치는 영향은 적지 않다는 것이 이코노미스트의 설명이다.

이코노미스트 예측 모델에 따르면 해리스 후보는 미시간에서 근소하게 앞서 있고, 네바다와 펜실베이니아, 위스콘신에선 트럼프 전 대통령과 동률을 복귀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애리조나와 조지아,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우세를 유지했다.

미국 컬럼비아대와 함께 개발한 이코노미스트의 선거 예측 모델은 각 주 단위의 여론조사에 해당 지역의 경제 통계와 과거 선거 결과, 인구 특성 등 외부 요인을 추가해 시뮬레이션하는 방식이

다.

또한 트럼프가 등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우호적인 기관의 여론조사에서 최근 해리스 부통령의 지지도가 상승한 것도 당선확률 산정 과정에서 민주당 측에 유리하게 반영됐다.

한편 이코노미스트는 선거 구도가 초접전 양상으로 펼쳐지고 있지만, 각 주 선거인단을 승자가 독식하는 미국 특유의 제도 때문에 실제 선거에서는 뚜렷하게 승패가 갈릴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대선에서 승리하는 후보가 지난 2020년 대선 당시 조 바이든 대통령(306명)보다 많은 선거인단을 확보할 확률이 40%에 달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번 선거에서 두 후보가 모두 269명의 선거인단으로 동점을 기록할 확률은 1% 미만이라는 게 이코노미스트의 분석이다. /연합뉴스

# 스페인 대홍수에 95명 사망...“기후변화 뉴노멀 적응실패”

### 연이틀 기록적 강수 ‘대재앙’ 지중해 역대급 온난화 원인

스페인 남동부에 연이틀 폭우가 쏟아지면서 현지 인명피해 규모가 계속 늘고 있다. 이번 홍수가 기후변화에 따른 극단적 기상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당국이 새로운 기상 여건에 적응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비판이 쏟아진다.

지난 30일(현지시간) 외신에 따르면 스페인 발렌시아를 비롯한 남동부에 전날부터 폭우가 계속되면서 최소 95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갑자기 쏟아진 폭우로 강이나 하천이 범람하면서 급류에 떠밀려 실종된 이도 상당수인 것으로 알려져 구조 과정에서 추가 희생자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스페인 기상청은 남동부 지역 발렌시아에서 8시간 동안 내린 비가 이 지역의 지난 20개월 치 강수량보다 많다고 밝혔다. 또한 폭우와 함께 토네이도가 발생하고 우박도 떨어져 피해를 더욱 키운 것으로 알려졌다.

기상학자들은 이번 폭우가 이 시기에 주로 나타나는 기후 현상인 ‘고타 프리아’(gota fría·차가운 물방울)와 연관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스페인에서 하루 만에 한 달 치 폭우가 쏟아지면서 최소 95명이 숨지는 등 인명과 재산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사진은 발렌시아 지방에 내린 역대급 폭우로 떠내려 온 차량들이 켜켜이 쌓여있는 모습. /AFP·연합뉴스

이베리아반도에서 발생한 찬 공기가 지중해의 따뜻하고 습한 공기와 만나 강력한 비구름을 형성하면서 폭우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가 이번 홍수에 영향을 줬다고도 분석했다.

과학자들은 기후변화의 종합적 영향 때문에 강우, 가뭄, 폭풍, 더위, 추위 등 기상 현상이 극단화하고 그 빈도도 높

아졌다고 입을 모은다.

이번 스페인의 경우 지구 기온 상승으로 지중해의 온도가 높아지면서 해수면 공기가 더 많은 수증기를 머금게 된 데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 지중해는 지난 8월 역대 최고 기온을 기록했다. 폭풍이 더 많은 수증기와 함께 더 많은 에너지를 얻으면서 강력해졌을 가능성이 엿보이는 정황

이다.

영국 레딩대 기후학과 교수인 리처드 앨런은 “이번 폭우는 지중해의 따뜻한 바다 위로 차가운 공기 방울이 906km 넘게 이동하면서 발생했다”며 “엄청난 양의 습기가 스페인의 산맥을 타고 이동하면서 지속적인 폭우와 심각한 수준의 갑작스러운 홍수를 초래했다”고 분석했다. /연합뉴스

# 美서 돼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첫 발견

### 농무부 “돼지고기 공급에 영향 없고 사람 전파 위험 낮아”

미국에서 첫소와 가금류 등을 통해 확산하고 있는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H5N1)가 돼지에서서도 처음 발견됐다.

미 농무부(USDA)는 서부 지역 오리건주의 한 소규모 농장에 있는 돼지에서 H5N1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발견됐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오리건 농장을 격리했으며 해당 농장의 돼지와 가금류는 살처분됐다고 농무부는 설명했다. 또 바이러스 확산을 막고 추가 검사를 위해 돼지 두 마리에 대해 검사를 진행 중이며, 양과 염소를 포함한 다른 동물들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고 덧붙였다.

농무부는 이번 사례가 미국의 돼지고기 공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사람

에게 전파될 위험도 낮다고 설명했다.

농무부는 “이 농장의 돼지들은 상업적인 식품 공급용이 아니었기 때문에 미국 내 돼지고기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세계보건기구(WHO) 고문인 세인트주드 아동연구병원 바이러스학자인 리처드 웨비는 “오리건 농장은 대형 상업 농장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큰 위험은 없지만, 돼지 사육에서 바이러스가 퍼지면 위험성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올해 H5N1 바이러스는 약 400개 농장으로 확산됐고, 사람에게까지 전염돼 현재까지 36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한 명을 제외한 모든 사람은 감염된 동물과 접촉한 사실이 있는 농장 근로자였다. /연합뉴스

# 헬러윈 사고우려...도시부야·신주쿠 “시민·관광객 오지 말라”

일본 도쿄에서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변화가자 헬러윈 명소로 알려진 시부야구가 31일 헬러윈을 맞아 시민과 관광객에게 안전사고 우려가 있다며 시부야구 주변을 방문하지 말라고 호소했다고 현지 공영방송 NHK가 보도했다. 시부야구는 또 조례에 따라

이날 JR시부야역 주변에서 노상 음주를 금지하고 편의점 등에는 주류 판매를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

시부야구는 많은 인파가 몰리지 않도록 이날 JR시부야역 앞 관광 명소인 ‘충견 키치코’ 동상 주변에 가림막도 설치해 기념사진 촬영도 막았다. /연합뉴스

## 실리를 따진다면 가성비 좋은 피닉스입니다!

1. 믿을 수 있는 100% 국내공정
2. 신속하고 확실한 A/S
3. 합리적인 가격에 고품질 품질

고볼 G-07 프리미엄  
럭셔리 프리미엄 상급자용

피닉스 K-07  
럭셔리 중상급자용

피닉스 G-01  
초보 입문자용

전 브랜드 할인 판매! 중고 골프채 보상 판매!

## 장인의 기술

오랜기술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순수 국내제작으로  
정밀함과 기술로 정성을 다해 만든 국내 장인 제품입니다.

# ASTRO

## 최고의 명품 파크골프채 아스트로

### A9 Nice Shot

상급자를 위한 정교한 방향성, 비거리, 타구감 향상

소비가자 W 1,180,000

|     |                         |
|-----|-------------------------|
| 헤드  | 단봉나무 / 고탄성 카본 / 황동      |
| 샤프트 | 최고급 고탄성 카본 100% (8강55g) |
| 길이  | 85cm / 83cm (여성)        |
| 중량  | 525g (±10g)             |

### A100 Nice

부드러운 타구감, 방향성, 비거리 최적화 / 골프엘리트 완전해결

소비가자 W 1,380,000

|     |                      |
|-----|----------------------|
| 헤드  | 단봉나무 / 고탄성 카본 / 황동   |
| 샤프트 | 신공법으로 설계 초고탄성 카본     |
| 길이  | 85cm / 83cm (여성)     |
| 중량  | 522g (±10g), 샤프트 50g |

### A5

최적의 밸런스 부드러운 스윙과 안정적 타구감

소비가자 W 800,000

|     |                         |
|-----|-------------------------|
| 헤드  | 단봉나무 / 고탄성 카본 / 황동      |
| 샤프트 | 최고급 고탄성 카본 100% (중강90g) |
| 길이  | 85cm / 83cm (여성)        |
| 중량  | 525g (±10g)             |

영무SP sports

062) 653-4141

광주 남구 대남대로 252 (백운동 644-33)

www.sunparkgolf.com